

2016학년도 수능대비

인터넷수능 B(문과)

현대시
변형 문제

 지인국어교육연구소

‘알고 있는 것’이 ‘알게 하는 것’에 이바지해야 한다.

‘잘 했다’보다는 ‘잘 하고 있다’를,

‘잘 하고 있다’보다는 ‘잘 할 수 있다’를 더 중시한다.

‘맞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눈’으로 문제를 풀거나 ‘머리’로 해결하기보다는 ‘생각’으로 풀어야 한다.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집중력’을 발휘하여 ‘핵심’을 짚어내야 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없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차이보다는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수많은 관계 그리고 수많은 시공으로 열려 있는 관계가 바로 관계망입니다. 그 관계망을 알아야 합니다.

CONTENTS

e+Plus 인수B 현대시

인터넷수능B 현대시 문제

현대시 B-1 <김소월, '삭주구성'>	3
현대시 B-1 <나태주, '대숲 아래서'>	8
현대시 B-2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11
현대시 B-2 <김영랑, '독을 차고', 수록A 실전모의 2회	14
현대시 B-3 <이상, '거울'>	18
현대시 B-3 <박남수, '거울'>	22
현대시 B-4 <유치환, '깃발'>	23
현대시 B-4 <김기림, '바다와 나비'>	26
현대시 B-5 <김광균, '광장'>	29
현대시 B-5 <김혜순, '별을 굶다'>	32
현대시 B-6 <정지용, '장수산1'>	36
현대시 B-6 <조지훈, '낙화'>	38
현대시 B-7 <이육사, '어둠에 젖어'>	42
현대시 B-7 <고은, '눈길'>	45
현대시 B-8 <이육사, '교목'>	48
현대시 B-8 <송수권, '나팔꽃'>	52
현대시 B-9 <신석정, '꽃덤불'>	55
현대시 B-9 <김현승, '사월'>	60
현대시 B-10 <윤동주, '참회록'>	62
현대시 B-10 <문정희, '성애꽃'>	66
현대시 B-11 <서정주, '무등을 보며'>	68
현대시 B-11 <천양희, '한계'>	72
현대시 B-12 <박목월, '산도화1'>	74
현대시 B-12 <백석,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76
현대시 B-13 <김광섭, '생의 감각'>	78
현대시 B-13 <나희덕, '속리산에서'>	82
현대시 B-14 <이수익, '단오'>	84
현대시 B-14 <박재삼, '흥부 부부상'>	85
현대시 B-15 <고은, '성묘'>	90
현대시 B-16 <신대철, '추운 산'>	94
현대시 B-16 <최승호, '대설주의보'>	98

15-인수 B	
문 학	현대시 B-1 <김소월, '삭주구성' >

1994학년도 수능 1차 김소월 '산', 1996학년도 수능 김소월 '삼수갑산', 1999학년도 수능 김소월 '진달래꽃',
2008학년도 6모 김소월 '나의 집', 2011학년도 9모 김소월 '길', 2014학년도 6모A 김소월 '접동새'

물로 사흘 배 사흘
먼 삼천 리
더더구나 걸어 넘는 먼 삼천 리
삭주구성은 산을 넘은 ㉠육천 리요

물 맞아 함빡히 젖은 제비도
가다가 비에 걸려 오노랍니다
저녁에는 높은 산
밤에 높은 산

[A] 삭주구성은 산 너머
먼 육천 리
가끔가끔 꿈에는 ㉡사오천 리
가다 오다 돌아오는 길이겠지요

서로 떠난 몸이길래 몸이 그리워
님을 둔 곳이길래 곳이 그리워
못 보았소 ㉢새들도 집이 그리워
남북으로 오며 가며 아니함디까

들 끝에 날아가는 나는 구름은
밤쯤은 어디 바로 가 있을 텐고
삭주구성은 산 너머
먼 육천 리

*삭주구성: 평안북도에 있는 삭주군과 구성군. '평안북도 구성'은 김소월의 고향임.

- 감상 : 이 시는 그리운 임이 살고 있는 삭주구성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삭주구성으로 갈 수 없는 화자의 처지와, 그에 따르는 그리움과 미련의 정서를 자연물을 통해 시각적 이미지로 잘 드러내고 있다,
- 주제 : 삭주구성에 대한 그리움
- 구성
 - 01연 : 대상(삭주구성)과 화자의 거리감
 - 02연 : 삭주구성으로 가기 어려움
 - 03연 : 삭주구성에 가고 싶은 화자의 간절함
 - 04연 : 삭주구성이 그리운 이유와 화자와 대조되는 자연물
 - 05연 : 삭주구성에 갈 수 없는 화자의 체념과 좌절감

1. [A]에 보이는 '삭주 구성'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에서도 멀지만 꿈에서도 갈 수 없는 원망과 자조의 공간
- ②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것을 꿈에서나마 이루는 위로의 공간
- ③ 현실적 거리도 멀지만 심리적 거리도 먼 동경과 체념의 공간
- ④ 현실적 거리감을 심리적 거리감으로 극복하려는 인내의 공간
- ⑤ 현실적 거리감과 심리적 거리감 사이에서 방황하는 애상적 공간

2.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보기>에서 찾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시적 화자는 부정적인 대상이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한다. 먼저 ①극복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처지와 대결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거나, ②극복할 수 없다는 인식에 비탄에 잠기기도 한다. 또는 ③대상이나 상황의 부당성과 비가치성을 풍자하여 비하시키며, ④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절망적인 대결을 감행하기도 하고 아예 ⑤대결을 포기하고 이상 세계를 지향하는 도피적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3.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3음보의 율격을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② 수(數) 표현을 활용하여 거리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③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계절감을 주는 소재를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자연물과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4. ㉠가 <보기>의 '기러기'의 공통된 시적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오늘은 / 또 몇 십 리 /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요.

말 마소 내 집도 / 정주 곡산
차 가로 배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갈래갈래 갈린 길 /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 김소월, <길>

- ① 화자의 태도가 전환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 ② 화자가 현실을 비판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 ③ 화자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 ④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⑤ 화자의 처지에서 느끼고 있는 정서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5. ㉠와 ㉡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거리가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은, 시인이 의도적으로 변화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시어를 구사하려 했기 때문이다.
- ② 거리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삭주구성은 실재하는 지명이 아니라 아득히 멀어 도달하기 어려운 미지의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 ③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견딜 수 없어서 ㉠만큼 떨어진 고향을 향해 떠났다가, 항상 ㉡정도쯤 가서 결국 되돌아오고 만 체험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 ④ ㉡는 꿈속의 상황을 표현한 것인데, 꿈속에서 삭주 구성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리 그리움이 간절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 ⑤ 화자에게 고향은 ㉠만큼 떨어진 곳이지만, 화자

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인 ‘새들’이나 ‘구름’
에겐 그 거리가 훨씬 짧을 것이라고 화자가 믿고
있기 때문이다.

[가]

물로 사흘 배 사흘

먼 삼천 리

더더구나 걸어 넘는 먼 삼천 리

삭주 구성(朔州龜城)은 산(山)을 넘은 육천 리요

물 맞아 함빡이 젖은 ㉠제비도

가다가 비에 젖러 오노랍니다.

저녁에는 높은 산

밤에 높은 산

[A] 삭주 구성은 산 넘어
먼 육천 리
가끔가끔 꿈에는 사오천 리
가다오다 돌아오는 길이겠지요

[B] 서로 떠난 몸이길래 몸이 그리워
넘을 둔 곳이길래 곳이 그리워
못 보았소 새들도 집이 그리워
남북으로 오며가며 아니함디까

들 끝에 날아가는 나는 ㉡구름은

반쯤은 어디 바로 가 있을테고

삭주 구성은 산 넘어

먼 육천 리

- 김소월, <삭주구성>

[나]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서스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던 여원 ㉢독수리야!

와서 뜯어먹어라. 시름없이

너는 살지고

나는 여위어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 도적한 죄로 목에 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 윤동주, <간>

6.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명령형 어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나)에서는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 ④ (가)~(나) 모두 자연물로부터 삶의 교훈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가)~(나) 모두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7.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윤동주의 ‘간’은 우리나라의 실화인 ‘토끼전’과 서양 신화인 ‘프로테우스 신화’가 교직되면서 시상이 전개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두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간’ 때문이다. ‘토끼전’은 토

끼가 자라에게 속아 용궁으로 가서 용왕에게 간을 빼앗길 뻔했다가 지켜 낸 이야기이며, ‘프로메테우스 신화’는 프로메테우스가 인류에게 불을 훔쳐 준 죄로 제우스의 분노를 사서 코카서스 산에 있는 바위에 묶인 채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힌다는 내용이다.

신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 ① ‘습한 간을 찢어 말리우자’는 토끼의 자기 행위에 대한 반성과 용궁의 잔재를 말끔히 없애 버리고 생명력을 소생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시행이다.
- ② ‘코카서스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는 ‘토끼전’과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 ③ ‘내가 오래 기르던 여원 독수리야!’는 스스로에게 아픔을 주는 반성적 의식과 현실에 대한 저항 정신이 무뎠던 상태를 의미한다.
- ④ ‘너는 살지고 / 나는 여위어야지, 그러나’는 자신의 육체를 희생하더라도 정신적 가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 ⑤ ‘목에 맷돌을 달고 /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는 화자가 연민하는 대상으로 극복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이다.

8. <보기>를 [B]와 같이 바꾸었다고 가정할 때, 시적 효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님을 남겨두고 떠난 몸이길래 잊을 수 없는 그 곳
내 마음도 새처럼 자유롭게 그 곳으로 날아갑니다.

- ① 문장이 길어지면서 전체적인 의미가 변하였다.
- ② 음악적 요소가 줄어들고 감각적으로 선명한 이미지를 드러내었다.
- ③ 시어를 첨가하여 시적 화자의 심리 변화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 ④ 같은 구조의 문장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살리고 의미를 강조하였다.
- ⑤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신념과 확

1 바람은 구름을 물고 구름은 생각을 물고 다시 생각은 대숲을 물고 대숲 아래 내 마음은 낙엽을 본다. 2 밤새도록 땃잎에 별빛 어리듯 그슬린 등피에는 네 얼굴이 어리고 밤 깊어 대숲에는 후둑이다 가는 밤 소나기 소리. 그리고도 간간이 사운대다 가는 밤바람 소리. 3 어제는 보고 싶다 편지 쓰고 어젯밤 꿈엔 너를 만나 쓰러져 울었다. 자고 나니 눈두덩엔 메마른 눈물자국, 문을 여니 산골엔 실비단 안개.	4 모두가 내 것만은 아닌 가을, 해 지는 서녘구름만이 내 차지다. 동구 밖에 떠드는 애들의 소리만이 내 차지다. 또한 동구 밖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밤안개만이 내 차지다. 하기는 모두가 내 것만은 아닌 것도 아닌 이 가을, / 저녁밥 일찍이 먹고 우물가에 산보 나온 / 달님만이 내 차지다. 물에 빠져 머리칼 행구는 달님만이 내 차지다. *사운대다: '살랑거리다'의 전라도 사투리. 바람, 풀벌레, 대숲 등이 작용하여 내는 작은 소리나 모습.
--	--

주제	대숲에서의 상념과 깨달음
감상	이 작품의 화자는 가을날 대숲에서 밤 깊도록 소나기 소리와 밤바람 소리를 들으며 임에 대한 그리움에 젖는다.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며 밤새 울다 잠든 화자는 서녘구름, 애들의 소리, 밤안개 등 자신의 주변에 있는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에서 위로를 받으며 임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과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 즉, 눈앞에서 펼쳐지는 자연을 보며 상실감과 슬픔을 극복하고, 이때 얻은 새로운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특징	① 각 연에 번호를 매겨, 연의 독립성을 부각시킴 ② 자연을 통해 그리움이 환기되고, 자연을 통해 상실감을 극복해 냄

9. 이 글의 화자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 ① 화자의 상념은 밤늦도록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것이군.
- ② 화자는 순수한 동심을 잃어버린 상황을 슬퍼하고 있군.
- ③ 화자는 대숲이라는 공간을 사색의 장소로 선택하고 있군.
- ④ 화자는 자연의 위로를 받으며 상실감에서 벗어나

고 있군.

- ⑤ 화자는 사물의 모습을 인간의 행동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군.

[가]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 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김소월, <초혼>

[나]

1

[A] 바람은 구름을 몰고
구름은 생각을 몰고
다시 생각은 대숲을 몰고
대숲 아래 내 마음은 낙엽을 몬다,

2

[B] 밤새도록 땃잎에 별빛 어리듯
그슬린 등피에는 네 얼굴이 어리고
밤 깊어 대숲에는 후둑이다 가는 밤 소나기 소리
그리고도 간간이 사운대다 가는 밤바람 소리

3

[C] 어제는 보고 싶다 편지 쓰고
어젯밤 꿈엔 너를 만나 쓰러져 울었다
자고 나니 눈두덩엔 메마른 눈물 자국,
문을 여니 산골엔 실비단 안개,

4

[D] 모두가 내 것만은 아닌 가을
해지는 서녘 구름만이 내 차지다.
동구 밖에 떠도는 애들의
소리만이 내 차지다
또한 동구 밖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밤안개만이 내 차지다

[E] 하기는 모두가 내 것만은 아닌 것도 아닌
이 가을
저녁 밥 일찍이 먹고
우물가에 산보 나온
달님만이 내 차지다
물에 빠져 머리칼 행구는
달님만이 내 차지다.

- 나태주, <대숲 아래서>

10.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다.
- ④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⑤ 풍자적인 수법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